

## 괘네깃당본풀이

소천국은 제주땅 알송당 고부니마루에서 솟아나고 백주또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 백주또가 천기를 짚어 보니 자기 천상배필 될 짝이 제주땅 알송당에서 탄생해 살고 있었다. 백주또는 바다를 건너 제주땅으로 들어와 송당을 찾아가 소천국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다.

둘이 아들 오형제를 낳고 또 여섯째를 잉태중일 때 백주또가 소천국한테 말했다.

“아이는 이렇게 많이 낳는데 놀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농사를 지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소천국이 주변 땅들을 둘러보니 넓은 밭이 보였다. 소천국은 황소를 몰고 쟁기를 지워 밭을 갈러 나갔다. 백주또가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 모두 열여덟 동이를 차려서 밭가는 데 가지고 가자 소천국이 옆에 두고 가라 했다. 백주또가 돌아오고 소천국이 혼자 밭을 갈고 있는데 태산절 중이 지나다가 소천국을 찾았다.

“잡수던 점심이 있으면 한 술 주시어 허기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소천국이 먹은들 얼마나 먹으랴 하고 백주또가 놓고 간 것을 가리키자 태산절 중이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먹고는 달아나 버렸다. 밭을 갈던 소천국이 배가 고파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 밥과 국이 한 점도 없다. 시장기를 참지 못한 소천국은 밭 갈던 소를 때려잡아 찢레나무 적꼬치에 꿰어 구워 먹기 시작했다.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고도 허기를 면하지 못해 건너편에서 풀을 뜯고 있던 이웃집 암소까지 끌어다 잡아먹으니 그제서야 겨우 배가 찼다. 소천국은 밭으로 들어가 배때기로 밭을 갈기 시작했다.

그때 백주또가 밭에 나와서 보니 소는 간데없고 남편이 배때기로 밭을 갈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소가죽도 돌이요 소머리도 돌인데 누린내 기름내가 진동을 했다. 백주또가 기가 막혀서 말했다.

“자기 소를 잡아먹은 건 그렇다 쳐도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으니 소도독놈 아닙니까? 그대와는 한 방에 잠을 자고 한 술의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살림을 분산합시다.”

그렇게 해서 둘은 그날부터 살림을 가르게 되었다. 백주또는 바람 위로 올라서서 웃마을에 자리잡고 소천국은 바람 아래로 내려서 아랫마을에 자리 잡았다. 소천국은 산천에 올라가 노루, 사슴, 큰 돼지, 작은 돼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삶아먹고 살았다.

백주또가 임신했던 아이를 낳아서 나이 세 살이 되자 아비 없는 자식을 만들 수 없어 들쳐 업고서 소천국을 찾아 나섰다. 아랫마을에 들어가 보니 움막 속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소천국이 그 안에 있다. 백주또가 말없이 그 앞에 아이를 부려놓으니 소천국이 아이를 들어 안았다.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제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두드렸다.

“이 아이를 뵈 땀에도 일이 글러서 살림이 분산되더니 태어나도 이런 행실을 하니 죽일 수는 없고 동해 바다로 띄우리라.”

소천국은 무쇠 석함에 아들을 집어넣고서 자물쇠를 덜컥 잠가 동해바다로 훌쩍 띄워 버렸다.

무쇠 석함은 물 위로 삼년 물 아래로 삼년을 떠다니다가 용왕국으로 들어가 산호수 윗가지에 걸렸다. 그때부터 용왕국에 풍운조화가 일어나니 밤에는 초롱불 촛불이 요란하고 낮에는 글 읽는 소리가 진동했다. 용왕이 놀라 큰딸더러 가보라 하니 별 일 아니라 하고 둘째딸도 별 일

아니라 한다. 막내딸이 나가 보고 오더니 이상한 무쇠 석함이 있다고 한다. 큰딸더러 내리라 하니 못 내리고 둘째딸도 못 내리는데 막내딸더러 내리라 하니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워서 살짝 내려놓았다. 큰딸더러 열어보라 하니 못 열고 둘째딸도 열지를 못하는데 막내딸이 발로 툭탁 차니 무쇠 석함이 절로 덜컥 열어졌다. 석함이 열리고 보니 옥 같은 도령이 번듯이 앉아서 글을 읽고 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해동조선 남방국 제주섬에서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는가?”

“강남천자국 변란을 막으러 왔습니다.”

용왕이 범상치 않게 여기고 그한테 큰딸 방으로 들라 하니 거들떠도 안 본다. 둘째 딸 방으로 들라 하니 역시 거들떠도 안 보았다. 막내딸 방으로 들라 하니 웃으면서 걸어 들어간다.

막내딸이 서방을 위해 흰밥에 시루떡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내는데 궤네깃또는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당신은 무엇을 잡수십니까?”

“돼지도 통으로 먹고 소도 통으로 먹습니다.”

막내딸이 용왕한테 여쭙자 용왕이 탄복하며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 사위를 대접했다. 날마다 그렇게 돼지를 잡고 소를 잡으니 용궁 창고가 다 비어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겠다. 여자는 출가외인이라 했으니 서방을 따라 가거라.”

용왕은 무쇠 석함에 막내딸과 사위를 집어넣고서 물 밖으로 띄워보냈다.

석함이 물 위를 떠돌다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 이르자 나라에 풍운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천자가 무쇠석함을 가져오게 해서 열어보려 했으나 도통 열리지를 않았다. 괴이하게 여겨 점장이한테 물으니 네 번 절을 해야 문이 열리리라 한다. 천자가 할 수 없이 의관을 갖추고 절을 올리자 그제서야 무쇠 문이 스르렁 덜컥 열리면서 옥 같은 도령과 각시가 나타났다. “그대는 어디서 오셨소?” “나는 조선 남방국 소천국의 아들로 어머니 나라 오랑캐를 토벌하러 왔습니다.” 천자가 반가이 여겨 무쇠투구 갑옷에 연월도, 비수금, 기치창검을 내어주고 오랑캐를 물리치도록 하니 소천국 아들이 대병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다. 처음에 들어가서 머리 둘둘은 장수를 죽이고, 두 번째 들어가서 머리 셋 달린 장수를 죽이고, 세 번째 들어가서 머리 넷 달린 장수를 죽이니 다시는 대항할 장수가 없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왔다. 천자가 기뻐하며 소천국 아들한테 나라 땅 한쪽을 떼어준다 하니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고 천금상 만호후를 봉한다 하나 그것도 싫다고 한다.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자가 허락하자 소천국 여섯째 아들은 관솔을 베어 전선 한 척을 짓고서 양식을 한 배 가득 실은 다음 대군을 이끌고 조선국으로 향했다. 일행이 망망대해를 훌쩍 가로질러 제주섬으로 들어가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본 소천국이 하녀한테 물었다. “무슨 일인데 이리 요란하던 말이나?” “소천국님이 죽으라고 무쇠 석함에 넣어 띄운 아드님이 삼천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리 만무하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버린 여섯째 아들이 대군을 이끌고서 다가오니 소천국이 그 기세에 놀려 아랫마을로 도망가다 죽고 말았다. 백주또도 겁이 나 윗마을로 도망치다가 죽었다. 소천국은 아랫마을 당신이 되고 백주또는 윗마을 당신이 되었다.

소천국의 아들은 각 마을 사냥꾼들을 한데 모아 사냥을 크게 해서 노루, 사슴, 큰 돼지, 작은

돼지를 많이 잡아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주고 흰 시루떡을 많이 해서 어머니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가 한라산 영산 큰 오름과 작은 오름을 두루 돌아보고 나서 바람 위쪽으로 궤네기란 곳을 찾아들고 보니 위로 든 바람 아래로 나가고 아래로 든 바람 위로 나가고 별이 솜솜 달이 솜솜하여 머무를 만했다. 소천국 아들이 궤네기에 좌정을 하고 앉았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이레가 지나도록 누구 하나 알아보고 대접하는 자가 없었다. 그가 산 아래 마을에 열두 가지 풍운조화를 내리자 마을사람들이 원인을 몰라 방황하다가 점을 쳐본즉 소천국 여섯째 아들이 신으로 좌정해서 내리는 조화라 한다. 사람들이 급히 그를 찾아와 절을 하고서 물었다. “신령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잡수십니까?” “소도 천 마리를 먹고 돼지도 천 마리를 먹는다.” “가난한 백성이 어찌 소를 잡아 위할 수 있겠습니까? 집집에서 돼지를 잡아 위하겠습니다.” “그렇거든 그리 하라.” 마을사람들이 제청을 잘 차리고 돼지를 통으로 잡아서 제물을 바치니 열두 풍운조화가 간 데 없고 마을에 일이 없었다. 그때부터 일 년에 한 번씩 돼지를 통째로 바치는 일을 거르지 않으니, 궤네기의 새로운 신 궤네깃또가 그 신통력으로 마을을 튼튼히 지켜주었음은 물론이다.